

햇빛은 화창하고, 바람은 시원하고, 소풍가기에는 더 바랄 것이 없도록 좋은 토요일 아침, 늦잠의 유혹을 물리치고 일찍 일어나 서둘러 문을 나섰다. 오늘(6월 23일)은 서울대학교 시카고 및 중서부 지부 동창회가 있는 날. 시카고 북서쪽에 위치한 엘크 그로브 빌리지의 버찌라는 숲에서 연례 피크닉이 열리는 것이다. 밥과 음료는 동창회에서 제공하고, 우리는 가서 동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만 하면 되는 날이다. 피크닉 장소에 도착하니 조대현(공 61 줄) 회장님께서 벌써부터 오셔서 준비를 하고 계셨다. 테이블을 정리하고 음식을 펼쳐 놓고 동창회 주소록을 꺼내 등록 준비를 하고 나니 저쪽 주차장에서 가족들과 손에 손을 잡고 걸어오는 동문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다. 정으로 정해진 약속시간이 되자 약 **여명의 동문들과 동문 가족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는 제 1회 졸업생인 *** 선배님도 계셨고, 48회 졸업생인 *** 후배님도 계셨다. 50년 가까운 서울대 역사가 눈 앞에 펼쳐진 셈이다.

불고기와 고등어를 구워서 배추김치, 오이소박이와 함께 푸짐한 점심 식사를 하며 선배들의 옛날 이야기와 후배들의 요새 이야기를 나누며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실감하며, 그러나 그 긴 시간 속에서도 한 모교를 공유하는 동문들 간의 유대가 굳건히 존속함을 느낄 수 있었다. 맛있는 도넛을 후식으로 즐기며 동창회를 시작하니 먼저 각 지역/학교/연구소 별로 동문들의 소개가 있었다. 시카고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동문들이 제일 먼저 소개 되었는데 한 동문(김 광표, 화학 86 입)의 4살된 아들(김기환)이 '칭찬하늘'을 부르며 기선을 잡자 그 뒤를 잇는 동문들도 질세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가무를 사랑하는 배달 민족의 기상을 손색없이 발휘했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서도 분단의 아픔은 잊혀질 수 없는 것. 북에 가족을 남겨둔 이산가족 동문들의 방북을 위한 연판장이 좌석을 돌자 전후 세대에 속하는 후배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서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음회기의 회장을 맡으실 한재은 선배님과 *경희 선배님부부의 취임사와 단체 사진을 끝으로 공식 행사가 끝나자 조대현 회장님께서 산더미 같은 선물을 들고 동문들을 발야구장으로 몰고 가셨다.

다른 약속이 있는 동문들이 아쉬워하며 발걸음을 돌린 후에도 30여명의 동문들이 남아 담소를 나누며 남은 음식으로 저녁을 해 먹고 나자 벌써 6시, 인디애나에서 먼 길을 온 동문들은 4-5 시간의 여행을 앞두고 있는 터라 자리를 접아야만 할 시간이 다가왔다. 다음 해 꼭 다시 모여서 동문애를 다지기로 약속하며 먼 곳으로 가까운 곳으로 모두 마음만은 뒤로 남겨둔 채 주차장을 빠져 나갔다.